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흑인 역사의 발굴:

-『니클의 소년들』에 제시된 화이트헤드의 역사 재해석-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학과 영어전공

반 형 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흑인 역사의 발굴:

-『니클의 소년들』에 제시된 화이트헤드의 역사 재해석-

지도 교수 김은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학과 영어전공
반형주

반형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원장 _____ 민병천 (인)

부위원장 _____ 고강일 (인)

위원 _____ 김은형 (인)

초 록

일각에서는 콜슨 화이트헤드의 『니클의 소년들』을 사실주의 역사 소설이라고 간주하지만, 본고에서는 이 소설을 린다 허천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학』(*A Poetics of Postmodernism*)에서 제시한 "역사기술 메타픽션"이라는 구조 아래 분석하고자 한다. 『니클의 소년들』의 장르를 이렇게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소설이 역사적 사건을 재배열하거나 재구성하여 기존의 역사—짐 크로 시대의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저자의 의식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화이트헤드가 소설에서 제기한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들을 분석해볼 것이다: "드러난 역사가 이 정도로 참혹했다면, 가려진 역사는 어떠했을까?"; "킹 목사의 정신이 폭력의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현대 흑인의 현실주의와 민권운동 세대의 이상주의적 정신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짐 크로 시대의 미국 사회를 내부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그에 따라 미국 역사를 일반적인 흑인 시민의 시각으로 다시 봐야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준다. 두 번째 질문은 짐 크로 시대 동안 소리 없이 죽어간 흑인들에 대한 호명이며, 이 작업은 그들의 삶을 알아간 폭력을 재조명한다. 또한 화이트헤드는 니클 감화원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죽은 주인공 엘우드의 존재를 통해 민권운동 정신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확인한 민권운동 정신의 한계점을 현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작품에 대한 본고의 최종 분석 대상이다. 화이트헤드는 현대 미국 사회에서 민권운동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역사 재인식과 사회구성원들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화이트헤드는 위의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 짐 크로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권운동 의식을 현대 사회에 통합시킬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어 : 콜슨 화이트헤드, 니클의 소년들, 현대 미국 문학, 역사기술 메타픽션, 짐 크로 시대, 인종 문제

학 번 : 2020-29698

목 차

국문초록.....	i
제 1 장 서 론.....	01
제 2 장 본 론.....	19
제 1 절 드러난 역사가 이 정도로 참혹했다면, 가려진 역사는 어떠했을까?.....	19
제 2 절 킹 목사의 정신이 폭력의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33
제 3 절 현대 흑인의 현실주의와 민권운동 세대의 이상주의적 정신은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52
제 3 장 결 론.....	61
인용문헌.....	65
Abstract.....	68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흑인 역사의 발굴: 『니클의 소년들』에 제시된 화이트헤드의 역사 재해석

2020-29698 반형주

I. 서론

몇 년 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전 대통령의 슬로건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위대하다”(great)는 단어의 선택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이 문구의 핵심은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로 “다시”(again) 돌아가는 데에 있다. 이 발언은 제한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이전 정권에 대한 안티테제로 해석될 수도 있고, 넓게 본다면 백인이 미국의 전권을 쥐고 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의미로도 읽어낼 수 있다. 현대의 백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시대의 향수와 환상을 느꼈을 것이다. 말과 열차를 타고 미국 전역에서 황금을 채굴하던 이야기, 대공황을 극복해내고 세계 패권국으로 우뚝 서게 된

이야기. 하지만,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말이 달리기 위한 길을 닦아야 되고, 철로를 놓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전쟁에서 총알을 맞아야 했을 것이다.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 슬로건은 미국의 역사를 조망함에 있어 노골적으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의 시각을 배제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헤게모니가 제시하는 역사적 관점이 인종차별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대 미국 작가 콜슨 화이트헤드(Colson Whitehead)의 주된 탐구 주제가 된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작품세계에서 미국의 역사를 흑인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고, 이러한 그의 견해는 그가 첫 번째 풀리처상을 타게 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The Underground Railroad*, 2016)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 소설은 남부 흑인을 북부로 탈출시켜주던 비밀조직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말 그대로 지하의 철도로 상상해본 소설이다. 주인공인 코라(Cora)는 지하 철도를 통해 노예 사냥꾼 리지웨이(Ridgeway)에게서 도망치며 미국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치게 된다. 매튜 디싱어(Mattew Dischinger)가 인용한 화이트헤드의 말에 따르면, 코라가 철도를 따라 여행하며 보게 되는 일련의 장면들은 미국의 “역사를 과장이나 날조 없이 재배열한”(rearranges history, it hardly invents or exaggerates, 83)

것으로, 1932년부터 1973년까지 이루어진 터스키기 매독 연구 사건(Tuskegee Syphilis Experiment),^① 2015년 찰스턴 교회 총기 난사 사건(Charleston church shooting)^② 등, 실제 미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적 사건들을 각색해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코라의 이동과 함께 미국의 사회의 이면에 인종차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집약적으로 검토해보게 된다. 결국 철도의 끝에서 코라는 노예의 구원을 상징하는 북부로 향할 수 없게 된다. 여정 내내 관찰한 미국 사회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이트헤드는 주인공이 머무는 마을마다 실제 인종차별 사건들을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시각에서 미국의 역사를 검토하고 질문하며, 그 결과 독자들은 코라의 시각과 더불어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백인 중심의 역사에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데렉 마우스(Derek C. Maus)는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역사 재해석방식을 “역사기술 메타픽션”(historiographic

① 1932년부터 1972년까지 40년 동안 미국 공중보건국은 흑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시행하였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이라고 부른다(「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② 2015년 6월 17일 저녁 사우스캐롤라이나주(South Carolina) 찰스턴(Charleston)의 이매뉴얼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Emanue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성서연구소에서 총기 난사범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Charleston Church Shooting”).

metafiction)이라는 장르적 틀로 설명한다(9). 역사기술 메타픽션이란 린다 허천(Linda Hutcheon)이 자신의 책 『포스트모더니즘 시학』(*A Poetics of Postmodernism*)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픽션과 역사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blur the line between fiction and history) 특징을 가지며, “동시적이고 노골적인 주장과 경계 넘기”(the simultaneous and overt assertion and crossing of boundaries)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사소설과 차이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133). 즉,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영역으로서 존재하던 역사적 사실이 역사기술 메타픽션에서는 작가의 주장 아래 과감하게 재배열되거나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배열된 이야기는 역사기술 자체에 대한 자의식적 성찰을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에서도 코라는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눈을 통해 또 하나의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며, 새롭게 구축된 미국의 역사에는 구원에 실마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니클의 소년들』(*The Nickle Boys*, 2019)을 중심으로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역사기술 메타픽션”을 활용했는지, 즉 작가가 기존의 역사 및 역사관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재배열 및 재구성했는지 분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2020년 화이트헤드에게 두 번째 풀리처상을 안긴 『니클의 소년들』의 배경은 실제 존재했던 도지어 학교(Dozier school)와 그 시간대의 미국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로라 밀러(Laura Miller)나 론 찰스(Ron Charles)등의 비평가들은 화이트헤드가 드디어 역사기술 메타픽션 장르에서 벗어나 사실주의 작가로 돌아섰다고 평가한다(Salván 2). 하지만, 『니클의 소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기술해놓은 사실주의 작품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주인공 엘우드 커티스(Elwood Curtis)와 터너(Jack Turner)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기술과 그에 대한 주인공들의 의식적 성찰이다. 예를 들어, 작중에서는 20세기 미국의 역사가 순차적으로 제시되는데, 그와 평행하게 엘우드만의 역사 기록도 진행된다. 이 기록은 감화원 밖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미국의 폭력적인 역사로서 엘우드가 목숨과 맞바꾸어 고발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 또한 엘우드가 죽은 뒤 그의 이야기를 짚어지고 살아가는 터너에게도 같은 사명을 부여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이트헤드는 작품의 프롤로그부터 “전혀 수상하지 않은 장소들이 그 지경이었다면, 원래부터 음산한 장소는 어땠을까?”(If that happened to the harmless places, what do you think the

haunted places looked like?, 6)라고 말하며, 쓰여진 역사가 아닌 파묻힌 역사를 문학 작품 안에서 발굴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이 소설의 핵심은 미국이 인정해온 역사와 인정하지 않은 흑인 시민의 역사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데에 있으며, 화이트헤드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화이트헤드가 선택한 시대적 배경과 작품 속에 구성해놓은 서사 장치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니콜의 소년들』의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된 짐 크로(Jim Crow) 시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작품의 주제와 잘 맞물린다. 첫 번째로, 상기한 시기의 역사에 흑인의 목소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작가가 주인공 엘우드를 통해 흑인들의 잊힌 과거를 발굴하고자 하는 데에 당위성을 제공한다. 짐 크로 시기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재건기(Reconstruction Era)부터 시작되는데, 재건기는 흑인에게 있어서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앨런 브링클리(Alan Brinkley)에 따르면 재건기는 노예제 폐지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백인 우월주의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흑인이 남부 정치 세계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236). 또한 브링클리가 이 시기의 흑인의 지위에 대해 “노예제도라는 법적인 예속에 비해 단지 조금 덜 억압적일 뿐이었다”(236)고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국은 근대화된 사법

체계를 형성한 국가이면서도 흑인 노예제를 실질적으로 여전히 유지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 비록 노예에서 갓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프레드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와 같은 극소수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흑인이 글을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흑인 국민의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되기 힘들었다. 심지어 당시 흑인이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도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다. 하워드 진(Howard Zinn)은 노예 출신이었던 토머스 홀(Thomas Hall)의 말을 인용하며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노예들에게 자유만 주었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았다”(123)고 당시의 상황을 평가했다. 이렇게 근대 미국의 역사는 흑인의 시각이 배제된 채 기록되기 시작했다.

미국사 교수 혼다 소조는 그의 저서 『미국 흑인의 역사: 진정한 해방을 위한 발자취』에서 이러한 양면적인 미국의 역사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1870년 3월 남북전쟁이 종료되고 미국 헌법 수정 15조(the Fifteenth Amendment)에 따라 흑인의 선거권이 인정되었지만, 전후의 경제 문제가 “[중앙 정부가] 남부 농장주와 결탁해 남부를 북부 자본의 수탈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해결되면서, 흑인들은 수탈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혼다 153). 이러한 결탁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치계는 부정부패에

휩싸였고, 뒤이어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투표 문제까지 생겨버리자 공화당은 1877년에 남부를 민주적으로 재건하고자 하는 목표를 포기하는 “헤이스-틸던 타협”(Compromise of 1877)을 하게 된다(혼다 157). 결국 1867년 이전에 투표한 사람의 자손만이 투표할 수 있다는 “조부 조항”(Grandfather Clause)이나, 1896년 5월 18일 루이지애나(Louisiana)주 열차 안에서 흑인이 백인과는 다른 열차 칸에 타야 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다(혼다 164). 이렇게 미국 헌법 수정 15조를 무시하도록 제정된 일련의 법안들을 “짐 크로 법”(Jim Crow Laws)이라 부르며, 이 법이 유효했던 시대를 짐 크로 시대라 부른다. 이 법안들은 “대중교통과 학교에서 유색인종을 분리”(Urofsky)하도록 하였으며, 『니클의 소년들』에 등장하는, 백인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는 흑인은 투옥될 수 있다는 “오만불손한 접촉”(Bumptious contact, 70)도 이 법안이 실제로 발동되던 형태 중 하나였다.

이 “분리”(separation)라는 문구는 겉으로는 인종 평등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별을 드러내는 또 다른 말이었다. 짐 크로 법이 만들어지자 백인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흑인들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린치를 가하기 시작했다(브링클리 234). 브링클리는 “1890년대에는 미국 전체에서 매년 평균 187건의 린치가 있었는데, 그 중의 80퍼센트 이상이

남부에서 발생했고, 최대의 희생자는 물론 흑인이었다”고 언급하며, 합법화된 차별제도가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한다(234). 진 또한 짐 크로 시대의 제도에 대해 “검둥이를 싸 죽인 백인은 자유롭게 길거리를 활보한다. 반면 돼지고기를 훔친 검둥이는 10년간 쇠사슬에 묶인 채 중노동을 해야한다”(126)는 흑인 편집자 토머스 포춘(Thomas Fortune)의 말을 빌려 당시의 부조리함을 지적한다. 이처럼 남부 사회에서 만연했던 인종차별은 흑인이 더 이상 남부에 살 수 없게끔 만들었고, 노예제가 있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흑인들은 이 지역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다. 결국 짐 크로 시기부터 이루어진 흑인의 역사 상실은 법제화된 인종차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상실된 역사를 증명하는 것은 기존 미국의 공식 역사 서술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다. 『니클의 소년들』에서도 미국 사회의 이러한 폭력에 의해 사라져버린 흑인 시민들에게 이름과 스토리를 부여하여 이 소실된 흑인의 역사에 대해 논의한다.

짐 크로 시대와 작품의 주제와 맞물리는 두번째 역사적 배경은, 주인공 엘우드를 통해 자세하게 전달되는 민권운동 시기 흑인 시민의 삶으로서,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민권운동과 그 정신을 다각도로 생각해보게끔 한다. 흑인 민권운동이 짐 크로 시대를 끝냈다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기간 일반적인

흑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운동 이후 현대에 와서까지 해결하지 못한 한계점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반쪽짜리 논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초반 미국 흑인 인권을 향상시킨 사건들과 작품 속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비교한다면, 화이트헤드가 작품에서 시도하는 비판적 검토 작업의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사실 20세기초 지구 전역에서는 세계대전이 연이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전쟁 개입에 앞서 더 이상 군 내부에서의 인종차별을 허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미국 정부는 국가적으로 임전 태세를 갖추고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 두 차례의 행정명령—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8802호, 1946년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의 행정명령 9981호—을 발표한다. 전자와 후자 모두 방위 산업에서의 인종차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1896년에 만들어진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 혼다 165)는 짐 크로의 원리를 뒤집는 공식적인 목소리였다.

법적인 제도가 흑인 민권 향상의 형식적인 사다리가 되어주었다면, 흑인들을 정신적으로 결속시킨 것은 킹 목사를 비롯한 민권운동의 물결이었다. 『니클의 소년들』에서도 중심

소재가 되는 이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추구”(진 219)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진은 이 메시지가 일부 흑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백인이 흑인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정리했다(219). 혼다 역시 이후 차례로 이어지는 시위를 예시로 들며, 흑인들이 “비폭력 저항 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중의 직접 행동”이 유효하다고 인지했을 것이라 서술했다(205).

정신적인 결속은 일상에서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에서는 “공교육 분야에서 '분리하되 평등하다'는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통해 차별 철폐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혼다 198).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Montgomery Bus Boycott)도 운동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로자 파크스(Rosa Parks)가 버스의 백인 자리에서 비키지 않다가 체포되자,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을 주축으로 승차 거부 운동이 일어나 군대, 교육을 넘어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가 위헌으로 인정되었다(혼다 204). 이후 “그린즈버러 연좌 운동”(The Greensboro sit-in), “프리덤 라이드”(Freedom Ride) 운동, 그리고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 등이 이어졌고, 민권운동의 역사는 1964년 공민권 법안의 통과와 킹 목사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혼다 246).

브링클리가 “흑인이 해방 후에 어떤 법적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스스로의 노력과 연방정부의 중요한 지원이 이루어진 결과였다”(232)고 평가할 만큼, 이 일련의 사건들이 갖는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거시적인 역사와 평행선을 그리는 미시적인 역사, 즉 개개인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니클의 소년들』에서는 이 일련의 사건들 중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의 결과가 흑인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제시한다. 작품에 따르면, 법제적으로는 분리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엘우드는 여전히 흑인만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교과서는 백인들이 쓰고난 것을 물려받아야 했는데, 이 교과서들은 치욕적인 인종차별적 욕지거리로 도배되어 있었다(29). “그린즈버러 연좌 운동”의 묘사에서도, 이 운동이 이루어낸 성과들보다는 “철봉으로 얻어맞기도 하고, 소방 호스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맞은”(beaten with metal bars, blasted by fire hoses, 22) 흑인 청년들에 대한 묘사가 작품에서 주를 이룬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이러한 작품 속

부분들을 읽으면서 실제 역사와의 괴리를 확인하는 한편, 나아가 과연 오늘날의 미국이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게 된다.

이러한 작업들 외에도, 화이트헤드는 『니클의 소년들』 속의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짐 크로 시대의 역사를 재해석하고자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주인공을 이용한 가상의 사고실험이라 할 수 있다. 즉 저자는 민권운동의 시기에 일반적인 흑인이 짐 크로의 폭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가상적으로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흑인 인물 엘우드의 삶을 재현한다. 이러한 가상 실험은 주인공 엘우드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에 정신적인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종차별에 시달린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서부로 떠나고, 할아버지나 증조부마저 흑인에 대한 폭력으로 살해당했던 환경 속에서, 엘우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킹 목사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작품 초반의 이 세팅을 통해 엘우드는 킹 목사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며, 어떠한 폭력과 부당함이 있어도 폭력을 맞서지 않는 “존엄성”(sense of dignity, 27)을 지키며 살아간다. 독자들은 작품 내내 이 어린 킹 목사가 니클 감화원(Nickel Reform School)이라는 폭력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그리고 독자는 민권운동의

결말처럼 엘우드가 불굴의 정신으로 니클이 주는 시련을 견뎌내거나, 똑똑한 현실주의자인 친구 터너와 함께 이 폭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폭력은 이 모든 희망을 잔인하게 꺾어버린다. 엘우드는 감화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 메이너드 스펜서(Maynard Spencer)에게 끌려가 실신할 때까지 채찍을 맞는다. 피부에 새겨진 상처는 엘우드를 병동에 몇 주 동안 묶어 놔줄 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complacent, 156) 검둥이로 변해버렸다고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다. 당시 엘우드가 경험한 폭력의 깊이가 이 정도로 깊었다면, 그 폭력의 넓이 역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뻗어나가 있었다. 실제로 엘우드는 감화원 생활을 하면서 운 좋게 지역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는데, 니클 밖의 지역사회도 폭력의 공간인 니클 내부와 다를 바가 없었다. 즉 니클 감화원의 학생들은, 20세기의 미국 도시 한복판에서 19세기 노예해방 이전의 미국에서처럼 인간이 아닌 노동력 상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팔리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부금이나 물품은 비밀리에 철저히 횡령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니클에서 탈출하다 감화원 교사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엘우드의 결말은 결국 민권운동의 정신이 미국 사회의 폭력 아래서 제대로 지속되기가 정말 힘들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가상 실험 장치와 더불어, 화이트헤드의 역사 재구성 작업의 의의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데 기여하는 또 하나의 장치는 니클 감화원이 지니는 은폐성의 재현이다. 폴라 마틴 살반(Paula Martín Salván)은 작품 속 공간에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안과 밖의 대조적인 모습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엘우드가 니클 감화원으로 들어오면서 “높은 돌담과 철조망을 기대했지만 벽은 전혀 없었다”(expected tall stone walls and barbed wire, but there were no walls at all, 47)고 표현할 만큼, 니클의 외부는 그 어떤 폭력의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는다. 하지만, 엘우드가 건물의 내부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난다. 삐걱거리는 나무판자부터 시작하여 육체노동에 시달리는 얼굴들, 그리고 그 안에서조차 제대로 된 이름 없이 암묵적으로만 언급되는 처형의 공간들은 “내부로부터 누군가에 의해 드러날 때까지”(until it is revealed by someone from the inside, Salván 7)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에서 생기는 정보의 격차는 주인공과 함께 독자를 니클이라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이끌고, 나아가 역사기술 메타픽션이 의도하는 목표, 즉 기존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을 발굴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니클의 소년들』에서 화이트헤드가 짐 크로 시대의 역사를 다시 써냄으로써 현대 인종 문제의 나아갈

길을 제안한다는 전제 아래 논지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작품을 관통하는 세 가지의 질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작품 텍스트에서도 제시된 것으로서, “드러난 역사가 이 정도로 참혹했다면, 가려진 역사는 어떠했을까?”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 역시 하나의 시각에 불과하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역사기술 메타픽션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자, 안과 밖이 대조적인 니클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 사실 이런 내부와 외부의 교차 확인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에서 코라가 인종 혐오 사건의 이면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사용된 바 있지만, 『니클의 소년들』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Salván 2).

두 번째 질문은 “킹 목사의 정신이 폭력의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이다. 엘우드 는 킹 목사의 도덕적 규율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정신과 육체는 니클 감화원의 폭력성 앞에 철저하게 파괴된다. 이는 짐 크로 시대에 소리 없이 죽어간 흑인들에 대한 호명이자,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인종차별적 폭력성에 대한 재조명이다. 그리고 결국 니클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엘우드의 존재는 민권운동의 정신이 개개인의 실천 수준에서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화이트헤드의 지적이 담겨있기도 하다.

마지막 질문은 “현대 흑인의 현실주의와 민권운동 세대의 이상주의적 정신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이다. 이는 두 번째 질문에서 확인한 민권운동 정신의 한계점을 현대 미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작가가 탐구하는 부분이다. 비록 엘우드가 희생되었지만, 현실주의자였던 터너는 엘우드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결국 터너는 니클을 탈출한 뒤에 엘우드의 이름을 가명으로 삼고 그의 정의관에 따라 살게 된다. 이후 그는 수십년이 지나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게 되고, 아내는 그가 고백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한다. 터너는 이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 증언과 인정의 구조는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TV나 인터넷등의 매스컴을 통해 집단적인 수준으로 확장된다. 즉, 화이트헤드는 현대 미국 사회에서 올바르게 민권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차원의 역사 재인식과 그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제기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탐구는 짐 크로 시대의 역사를 흑인 시민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려 하는 저자 화이트헤드의 작업의 의의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이다. 또한 이 질문들에 대한 탐구는 작가가 과거 민권운동의 정신을 어떤

식으로 계승하여 현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즉 현대에도 지속되는 인종차별의 현실과 그에 대한 작가의 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II. 본론

1. 드러난 역사가 이 정도로 참혹했다면, 가려진

역사는 어떠했을까?

“그 녀석들은 죽어서도 골칫거리였다”(Even in death the boys were trouble, 3)는 프롤로그의 첫 번째 문장은 미국 흑인 역사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인식과 작품이 쓰인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 “그 녀석들”(the boys)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비밀리에 생매장당한 흑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구체적으로는 경범죄나 누명 때문에 니클 감화원에 끌려 들어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흑인 소년들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들의 존재를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폭력 아래 흑인의 역사가 은폐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죽어서도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부분은 뒤에서 이어질 발굴 작업을 암시하는 문장이다. 이 작업은 가려진 흑인의 역사를 “밝혀내는”(unearth) 과정으로, 기존의 역사서술에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추가하고자 하는 작품의 “역사기술 메타픽션”적 목표와 연결된다(Maus 138). 비밀을 밝혀나가는 이 작업은 프롤로그의 이름 없는 무덤에서 시작하여,

니클 감화원,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작품의 주제를 완성시킨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화이트헤드가 각각의 장소에서 은폐와 폭로의 구조를 활용하여 역사를 재해석하는 방식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프롤로그의 이름 없는 무덤에서 이루어지는 발굴 작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발굴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하나는 말 그대로 니클이 있던 부지에서 사우스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South Florida)의 고고학과 학생들이 흑인 희생자들의 유골을 파내던 작업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그 녀석들”의 정체—“그들은 누구인가?”; “왜 그들은 골칫덩이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죽어서도 골칫덩이가 되었는가?”—를 알아내고자 하는 독자의 독서이다. 전자는 작품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후자는 화자의 풍자를 동반해 미국 사회의 은폐성을 비판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암매장된 흑인 소년들의 유골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해당 구역에서 벌어지는 복합상업지구 공사 때문이었다고 제시된다. 이는 수십 년간 시체의 존재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으며, 미국 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화자는

출토된 시체에 대해 “환경조사가 문제없기를 기다리던 부동산업자와, 얼마 전에 있었던 학대 문제에 대한 수사를 마친 주지사에게는 값비싼 골칫거리”(an expensive complication for the real estate company awaiting the all clear from the environmental study, and for the state’s attorney, which had recently closed an investigation into the abuse stories, 3)였다는 풍자를 하면서 제시된 정보를 인간의 생명보다 자본의 이득에만 집중하는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과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제시된 정보는 오히려 독자들이 유골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 왜냐하면 시체들이 왜 묻혔는지, 그리고 미국 사회는 그동안 어째서 이 사건에 대해 탐구했는지 여전히 그 이유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롤로그를 읽은 후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금이 갔거나 구멍이 뚫려있는 두개골, 대형 산탄이 가득 박혀있는 갈비뼈”(all those fractures and cratered skulls, the rib cages riddled with buckshot, 5) 등과 같이 사후의 증거품들뿐이다. 독자들은 비밀을 시사하는 이러한 증거로부터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니클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건지 집중하게 된다. 화이트헤드 역시 이러한 독서의 흐름을 의도한 듯이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발굴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공식적인 묘지에서 발굴된 유해들도 수상쩍은데, 이렇게 아무 표시도 없는 묘지에 묻힌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If the remains from the official cemetery were suspicious, what had befallen those in the unmarked burial ground?, 5). 그리하여 은폐된 역사를 드러내려는 화이트헤드의 의도된 전략 아래, 독자들은 파묻혀 버린 1950-60년대 미국 흑인의 고통의 역사를 발굴하는 작가의 작업에 처음부터 동참하게 된다.

프롤로그의 이야기가 은폐와 폭로 사이를 전략적으로 넘나들면서 화이트헤드의 호소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니클의 이야기는 미국 사회가 숨겨왔던 흑인에 대한 폭력을 낱낱이 고발한다. 이 고발은 역설적으로 니클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그 비밀을 철저히 숨긴 공간이었는가를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살반 역시 밖에서 보여지는 니클 감화원의 모습과, 감화원 안에서 엘우드의 눈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니클의 실체가 만들어내는 대조가 폭력의 공포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장치가 되었다고 설명한다(7). 아래의 인용문은 엘우드가 호송용 차를 타고 처음 니클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니클이 그렇게 형편없는 곳은 아닌 것 같았다. 높은 담장에

철조망이 있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이곳에는 아예 담장이 없었다. 캠퍼스도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무성한 초록색 나무들 사이사이에 빨간 벽돌로 지은 2층이나 3층 건물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삼나무와 너도밤나무가 그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높게 솟은 것을 보니 나이가 아주 많은 모양이었다. 엘우드 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본 적이 없었다. 진짜 학교, 좋은 학교였다.

Nickel wasn't that bad. He expected tall stone walls and barbed wire, but there were no walls at all. The campus was kept up meticulously, a bounty of lush green dotted with two- and three-story buildings of red brick. The cedar trees and beeches cut out portions of shade, tall and ancient. It was the nicest-looking property Elwood had ever seen—a real school, a good one.(47)^③

비록 엘우드가 억울한 일로 니클 감화원에 끌려오게 되었지만, 밖에서 보여지는 니클의 모습은 이와 같이 흠잡을 것 없이 아름답게 드러난다.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감화원이나 교도소를

^③ 본고에 사용된 *The Nickel Boys* 인용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니클의 소년들』(김승욱 역 2020, 은행나무)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상징하는 철조망이나 거대한 벽이 없으며,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유령 같은 나무나 길게 자란 풀도 없다. 대신에 생명력 넘치는 초록색 나무들과 그에 대비되는 선명한 붉은색 벽돌은 엘우드에게 이곳이 “진짜 학교, 좋은 학교”(a real school, a good one)라고 충분히 인식시킨다. 이는 엘우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니클을 보게 되는 모든 외부인이 니클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외관은 프롤로그의 발굴 작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방식을 거쳐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 프롤로그에서는 고고학과 학생들이 과거의 유해를 발견하는 형식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엘우드의 눈을 통해 과거 니클의 일들을 발굴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드러나는 진실은 니클 “밖”에서는 전혀 관찰할 수 없는 일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꼼꼼히 관리되는”(kept up meticulously) 캠퍼스는, “영양이 부족해서 경충하게 마른 몸”(spindly, undernourished frame, 61)을 한 학생들이 낮과 갈퀴를 들고 부여받은 업무 할당량을 힘겹게 채웠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한마디로 착취를 일삼아 이뤄진 아름다운 외양이다. 게다가 푸른 나무들 사이에서 빛나는 붉은 벽돌집도 비슷한 비밀을 드러내는데, 이는 “이 학교가 다섯살짜리 어린아이까지 입학시킬”(the school

admitted children as young as five, 76) 정도로 가능한 많은 아이들을 동원해 끝없이 가동시킨 “벽돌 기계로 하루에 벽돌 2만장을 생산”(The brick-making machine produced twenty thousand bricks a day, 76)하여 이뤄낸, 즉 극심한 극심한 아동착취의 결과물임이 곧 드러난다. 또한 생명력을 뿜내는 푸른 나무들은 사실 흑인 학생들을 처형하여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로서, 그중 떡갈나무 두 그루에는 “쇠고리들이 박혀”(with iron rings stabbed into the bark, 104) 있었는데, 이 쇠고리는 소년들을 때려죽일 때 묶어 놓던 도구로서 니클이 숨기는 광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니클 감화원 소속의 “교사들이 출석을 확인하지도 않고, 성적표를 나눠 주지도 않았다”(47)는 서술은 니클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엘우드가 처음 생각한 진짜 학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결국 이처럼 드러나는 안과 밖의 괴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니클의 면모—즉 아름다운 교정에서 흑인 아이들을 교화하는 선량한 교육 기관의 이미지—는 완벽한 거짓인 동시에, 이 베일에 가려진 진실은 니클 내부에서 조망하지 않으면 절대 밝혀질 수 없는 치밀하게 은폐된 역사였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화이트헤드는 이 허구적 발굴 작업을 통해 역사 서술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에서 유색인종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기존의 역사 서술에 대항해 합리적인 저항을 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철저히 감춰져온 폭력 행위를 단계별로 노출시킴으로써, 공포와 충격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다음의 인용문은 엘우드 가 니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처벌받는 장면을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엘우드가 잠든 뒤 종류가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시작되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커지거나 작아지는 변화 없이 훑물려왔다. 무섭고 기계적인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엘우드는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한 단어를 떠올렸다: 급류같은. 방 저편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누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나 보네.” 그러자 아이들 몇 명이 킬킬 웃었다.

Elwood was asleep when a different roar commenced. It came from outside, a rush and a whoosh without variation. Forbidding and mechanical and granting no clue to its origin. He didn't know which book he'd picked it up from, but the word came to him: torrential. A voice across the room said, "Somebody's going out for ice cream," and a few boys

snickered.(43)

니클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엘우드는 거의 외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외부인의 순수한 눈과 귀를 빌어 처벌의 장면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즉 엘우드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조차 “모르며”(no clue), 그 소음이 “기계적”(mechanical)이거나 “급류같다”(torrential)고 묘사할 뿐이다. 위 인용 문단의 마지막에 제시된 것처럼, 학생들은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다”(going out for ice cream)고 모호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인해 독자들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짐작만 할 뿐, 폭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알아낼 수 없다. 결국 폭력의 정도는 측정되지 않은 채, 독자의 상상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스크림이라는 은어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반응인데, 그들은 니클의 폭력 행위에 대해 “킬킬대며 웃을”(snickered) 정도로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건물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매질 소리와 학생들이 킬킬대는 웃음소리가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은, 니클이라는 공간의 끔찍한 이질성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처럼 공포스런 고딕 공간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독자들은 이 부분 이후로도 폭력에 대한 간접적인 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나 명명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엘우드가 니클 감화원 안에서 잔디를 깎다가 학생들이 처벌받는 창고를 발견하자, 동료 학생들은 “검둥아, 누가 끌고 가지 않는 한 그쪽으로 가면 안 돼”(Nigger, you don't go that way unless they take you, 63)라고 해당 장소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으면서 엘우드에게 물러서라고 충고한다. 엘우드 또한 역시 그곳을 곁에서 본 그대로, 즉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진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이후에도 이곳은 백인 아이들에게는 “아이스크림 공장”(Ice Cream Factory, 66), 흑인 아이들에게는 “화이트 하우스”(The White House, 66)라는 은어로 표현될 뿐, 전혀 폭력이나 처벌을 드러내는 언어로 언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곳에서 처벌이나 처형이 행해질 때마다, 감화원 교사들은 “대형 산업용 선풍기”(the gigantic industrial fan, 69)의 굉음으로 채찍과 비명 소리를 지워버리고, 피가 얼룩진 곳은 페인트로 덮어버림으로써 폭력의 참혹함을 은폐한다. 더욱이 학생들을 처참하게 폭력을 가해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장소는, 그 어떠한 은유나 묘사도 허용하지 않은 채 “뒤쪽”(Out Back, 103)이라고 간단히 지칭된다. 당연히 외부에서

견학이나 감사가 올 경우, 이러한 폭력의 공간들은 외부인들의 “경로에 포함되지 않았다”(was not part of the tour, 100). 이렇게 화이트헤드는 폭력의 정보와 묘사가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니클의 상황을 생생히 드러냄으로써, 이 감화원 안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및 폭력의 정도가 개인이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화이트헤드는 니클 내부에서 밝혀낸 폭력의 모습을 지역 사회로 확장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엘우드네는 작품 중반부터 친구 터너의 도움으로 “자유세계”(free world, 88), 즉 감화원 바깥 지역 사회로 사회봉사를 나가게 된다. 니클과 관련된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봉사활동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으레 하는 일처럼 보이며, 오히려 문제아나 불량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것이다. 하지만, 내부자인 엘우드의 시각에서 서술되는 이 봉사활동은 사실 니클 감화원과 지역사회 사이에 벌어지는 은밀한 횡령 행위임이 곧 밝혀진다.

일단, 터너의 소개가 있긴 했지만 엘우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은 담당 교사 하퍼(Harper)가 말하듯 “입을 닫는”(keep your mouth shut, 87) 것이라는 사실이 제시된다. 이후 하퍼는 “흑인 학생들의 보급품”인 “완두콩 통조림, 업소용 복숭아 통조림,

사과 소스, 삶은 콩 통조림, 그레이비소스”(89)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보급품들을, 니클 감화원과 연루된 엘리너(Eleanor) 시내의 백인 점주들의 가게에 매주 비밀리에 전달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물건들이 거래되고 난 후 다음으로 거래되는 것은 엘우드와 터너 자신들이다. 엘우드는 보급품을 비운 승합차가 다시 니클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퍼는 두 학생을 백인 거주자인 데이비스 부인(Mrs. Davis)의 집에 내려준다. 독자들은 터너와 엘우드가 거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백인 부인의 집을 페인트칠하는 모습에서 어렵지 않게 노예제 미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작품에 쓰인 말처럼, 노예제는 “잔혹한 유산”(brutal heirloom, 191)으로서 20세기의 미국 역사의 이면에서 줄곧 존재해 왔던 것이다. 페인트칠을 하면서 시작되는 터너의 옛이야기는 이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 즉 터너는 “오래 전엔 [상황이] 더 섬뜩했었다”(it was more gruesome, 93)고 언급하면서, 그땐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일을 나가는 수준을 넘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석방 상태로 마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팔아넘겼다”(you had parole where they basically sold your monkey ass to people in town, 93)고, 다시 말해 20세기 미국 사회에서 흑인 학생들을 19세기 노예제 현실에서처럼 사고 팔고 가둬둔 채 끊임없이 착취했던 추악한 과거가 존재했었다고 언급한다. 이와

같이 화이트헤드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인종 폭력과 노예제가 20세기까지 실질적으로 계승되어왔음을, 교도소 안이든 밖이든 이 지독한 인종차별의 상황이 미국 전역에 만연했었음을 고발한다.

이처럼 화이트헤드는 은폐와 폭로의 이분화된 관계를 활용하여 기존의 역사 서술을 비판하는 역사기술 메타픽션의 서술 목표를 달성한다. 여기에서 화이트헤드의 작업은 크게 세 단계—프로로그의 이름 없는 무덤, 니클 감화원, 그리고 니클을 둘러싼 미국 사회—를 거치며 체계적으로 확장된다. 프로로그의 시작부터 제시되는 총알 박힌 이름 없는 시체들은 기록되지 못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요구한다. 그리고 발굴의 대상이 되는 과거의 니클 감화원으로 서사가 이어지면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역사 발굴 작업에 동참하게 된다. 프로로그 이후의 부분에서 화이트헤드는 니클 감화원의 처벌 장면 및 장소를 처음에 의도적으로 가리는데, 이는 개인이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한편,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폭력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한다. 특히, 피해자인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제대로 언급조차 못 하는데, 이는 그들의 역사가 왜 쉽게 지워지고 은폐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은폐의 구조 혹은 폭력의 구조가 니클이라는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스템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암암리에 니클의 소년들을 19세기의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고, 감화원에 들어온 보급품들은 니클과 결탁한 백인 점주들의 가게에 팔리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촌촌하게 짜인 폭력의 세계는 앞으로 살펴볼 엘우드의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개연성을 더해주기도 한다.

2. 킹 목사의 정신이 폭력의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지금까지 저자가 작품 속에서 구성해낸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의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주인공 엘우드가 없다면, 역사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화이트헤드의 서술 욕망은 충족될 수 없다. 특히, 화이트헤드가 서술하고자 하는 바가 기록되지 못한 흑인들의 역사라는 점은, 주인공인 엘우드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독특한 조건들을 갖추게 하였다: 첫째, 엘우드는 짐 크로 시대와 민권운동 시대를 살았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일반적인 흑인 인물이며, 둘째, 그는 짐 크로 시대에 흑인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면서, 셋째, 엘우드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현재 인종차별의 현실을 살아가는 흑인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되게끔 형상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챕터에서는 엘우드의 위와 같은 특성들이 드러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엘우드의 생애를 이처럼 제시하는 것이 작가 화이트헤드의 주장과 시각을 어떤 식으로 뒷받침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엘우드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가 킹 목사나

말컴 엑스(Malcom X)와 같은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위인들의 이야기는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위인들을 통해 화이트헤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 즉 일반적인 흑인들이 겪은 폭력을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 위인들과 달리, 엘우드(Elwood)는 동네의 잡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조금 "똑똑하고 부지런한"(intelligent and hardworking, 24) 소년일 뿐이기에, 그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내용은 독자들이 『니클의 소년들』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즉 짐 크로 시대에 일반 흑인이 겪는 일상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공교육에서의 인종 분리가 철폐되었지만, 엘우드는 여전히 흑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백인 학생들로부터 물려받은 헌 교과서에는 "뒤져, 검둥이"(Choke Nigger!, 29)와 같은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는 엘우드 뿐만이 아니라 엘우드의 가족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삶은 짐 크로 법, 세계대전, 민권법 제정 등이 일반 흑인들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는 제7장에서 왜 엘우드의 가족이 그의 할머니뿐이었던지를 밝히면서 자세히 서술된다. 먼저, 해리엇의 아버지, 즉 엘우드의 증조부는 "시내에서 백인 여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다가

옥사했다”(died in jail after a white lady downtown accused him of not getting out of her way on the sidewalk, 70)고 제시된다. 이는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통용되었던 미국 사회의 인종분리 정책인 짐 크로 법 조항 중의 하나로서, 해당 법안이 단순히 흑백 분리의 수준을 넘어 흑인의 목숨까지도 손쉽게 앗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해리엇 아버지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발표되었으나, 이에 대해 해리엇의 삼촌이 “검둥이가 감옥에 갔으니 뻔하지”(Niggers and jail, 70) 라고 말하는 부분도,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가 폭력의 실상을 감추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화이트헤드의 서술 의도를 담아낸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것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사회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해리엇(Harriet)의 남편 몬티(Monty)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흑인 민권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건인데, 이는 미국이 지구 곳곳에 병력을 파병하게 되면서, 흑인들의 적극적인 전쟁 참여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48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군대 내에서 흑인 차별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 9881호(Executive Order 9981)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제화와 시민 인식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몽포드 포인트 마린(Montford Point Marines)에서 근무한 최초의 흑인 해병 중 한 명인 에드윈

파이저(Edwin J. Fizer)는, 60여년이 지난 2012년이 되어서야 의회 금메달(Congressional Gold Medal)을 수상하면서, “나는 인종주의 및 짐 크로와의 전쟁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해외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Basu)고 인터뷰했다. 즉, 흑인 군인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중에도 백인 군인들에게 차별을 받았으며, 전역을 하고 나서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혼다 교수도 세계 대전 이후 흑인 병사들이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동맹국 군인들로부터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후,] 인종차별 제도에 대한 더 큰 반감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다]”(182)고 설명한다.

작품 속에서도 당시의 인종차별과 분리 제도에 반감을 느끼는 흑인 군인들과, 군복을 입은 흑인들의 모습에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백인 빈민층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해리엇의 남편 몬티는 미스 시몬의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의자에 머리를 맞았다”(Harriet’s husband, Monty, got hit in the head with a chair while breaking up a scuffle at Miss Simone’s, 70)고 제시되었는데, 이 싸움도 앞서 제시한 두 집단, 즉 흑인 군인과 백인 빈민층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었다. 흑인 전역자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는 해리엇의 사위 퍼시(Percy)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군인 제복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백인

가난뱅이들”(crackers, 70)에게 테러를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한 끝에 더 이상 텔러해시(Tallahassee)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엘우드를 장모인 해리엇에게 버려둔 채 아내와 캘리포니아(California)로 도주하게 된다.

이러한 엘우드 일가의 기록은, 미국 역사를 바라보는 공식적인 관점에 짐 크로 시대를 살아갔던 흑인 일반 시민들의 시각을 추가하는 작업으로서, 서론에서 제시했던 역사기술 메타픽션 장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마틴 루터 킹, 맬컴 엑스 등의 유명한 인물들과는 달리 민권운동 의식을 지닌 일반 흑인들의 삶은 역사에 기록되기 어려웠으며, 그나마 소설의 동기가 된 도지어 학교의 유골들처럼 비밀에 싸인 증거들로만 간신히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이러한 유골에 스토리를 부여하고, 스토리는 이 희생된 이들의 존재를 밝히는 목소리가 되어준다. 다시 말해 이 스토리는, 이름 없이 죽어 나간 흑인들에 대한 화이트헤드만의 호명이 된다.

실제로 저자 화이트헤드는 스토리 없이 묻혀버리기 쉬운 보통 사람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아래와 같이 터너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 승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터너는] 래브라도 강아지처럼 혀를 내밀고 [마라톤의] 약 23마일 지점에서 반쯤 걷다시피 하는, 그로기 상태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좋았다.

It was easy to root for the winners. No, he liked the punch-drunk ones, half walking at mile twenty three, tongues flapping like Labradors.(159)

이와 같이 화이트헤드는 주인공 엘우드의 집안 내력을 통해 짐 크로 시기 동안 일반적인 흑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폭력과 차별의 역사를 생생히 소개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엘우드의 생애 묘사를 통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폭력의 광기를 폭로하고자 한다. 이를 고발하기 위해 저자가 선택한 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자비한 폭력에 정반대되는 평화주의자 킹 목사 정신을 엘우드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1960년대 마틴 루터 킹이 민권법 개정을 이루어 냈을 때, 킹 목사와 동일한 정신을 가진 소년이 미국의 한 구석에서 인종차별의 폭력으로 죽어갔다면, 이는 미국 사회가 갖는 모순적 이중성과 은폐성을 효과적으로 고발하는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첫 번째 작업으로, 화이트헤드는 제1장의 첫 부분에서 엘우드가 킹 목사의 정신을 온전히 받아들인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엘우드 는 1962년 크리스마스에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비록 이 선물이 그의 머리에 넣은 신념이 파멸의 원인이 되어버렸지만. 그날 받은 선물 『자이언 힐의 마틴 루터 킹』은 엘우드가 가진 유일한 앨범이었고, 그건 단 한번도 턴 테이블을 떠난 적이 없었다.... 몇 달 동안 음반에 생긴 흠집이나 튄 부분들은 킹 목사의 말을 새롭게 이해할 때마다 돌려 들으며 생긴 것으로, 엘우드가 계몽되었다는 표시였다. 진실이 담긴 잡음이었다.

Elwood received the best gift of his life on Christmas Day 1962, even if the ideas it put in his head were his undoing. *Martin Luther King at Zion Hill* was the only album he owned and it never left the turntable. . . . Every scratch and pop it gathered over the months was a mark of his enlightenment, tracking each time he entered in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reverend's words. The crackle of truth.(11)

위와 같이 엘우드 에 대한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다름아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 앨범이다. 화자는 이 연설문을 단순한 생일 선물로 묘사하지 않는다. 이 주인공이 좋아하는 옷을 닳을 때까지 입었던 것처럼, 엘우드는 이 앨범을

“긁힌 자국이나 판이 튀는 부분”(scratch and pop)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 듣고, 이렇게 생긴 흠집들을 “계몽의 표시”(a mark of his enlightenment)로 받아들일 만큼 집착하고 있다.

엘우드의 이러한 광적인 집착의 이유는 아마도 앞서 살펴본 엘우드의 가족력에 있을 것이다. 즉 의지할 수 있는 가족 대부분이 인종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엘우드의 곁을 떠나버렸기에, 소년기의 이 주인공은 자신의 정신을 의탁할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만, 그가 정신적인 의지의 대상으로서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킹 목사의 연설을 선택한 것은 미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우드의 이러한 신념은 그가 니클 감화원에 들어가기 전 마르코니 씨(Mr. Marconi)의 잡화점에서 일할 때의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잡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인공은 또래 아이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눈감아 주지 않아 그 보복으로 아이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는데, 엘우드가 이러한 절도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마르코니씨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게 수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이는 그가 인간으로서의 “이 존엄성과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식”(this sense of dignity and this sense of somebody-ness, 27)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킹 목사의 연설을 마음 깊이 새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폭력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는”(maintain your sense of who you are) 민권운동의 투쟁 정신은 엘우드를 지배하게 된다.

주인공의 성격이 이처럼 설명된 시점에서, 저자 화이트헤드는 주인공을 니클 감화원이라는 미국 사회의 이면에 투입해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독자들은 엘우드가 니클에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 이를 처음으로 확인하게 된다. 고등학생 엘우드는 멜빈 그릭스 기술대학(Melvin Griggs Technical College)이 “성적 좋은 고등학생들에게도 개방한”(open to high-achieving high-school students, 39) 강의를 들으러 가고 있었고, 이때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로드니(Rodney)라는 흑인이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된다. 하지만, 그 차는 로드니가 훔쳤던 것이었고, 엘우드는 백인 경찰관으로부터 “오직 검둥이만 그런 걸 훔치지”(Only a nigger'd steal that, 42)이라는 말을 들으며 순식간에 절도범으로 내몰리게 된다. 더구나 이처럼 억울하게 니클 감화원에 감금된 엘우드를 위해 할머니 해리엇이 부지런히 향소를 준비하며 이 향소 진행 상황을 전달해주려고 “한 달에 두 번씩 엘리너를 방문”(made a trip to Eleanor twice a month, 154)하곤 했지만, 작품이 끝날 때까지 재판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해리엇은 엘우드와 변호를 맡은 백인 변호사에게 전 재산이 걸린 수입료를 절도당하고 만다. 이처럼 엘우드가 겪게되는 시련은 미국 사법 체계가 흑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농락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니클의 안에서 진행되는 폭력의 역사에 대한 고발은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었던 “안과 밖” 구조와 맞물려 효과적으로 제시된다. 엘우드가 니클의 밖에서는 힐 선생님(Mr. Hill)의 도움을 받거나 시위에 참여해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며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던 것과 달리, 니클 안에서 그는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되며 혼자 고립된다. 예를 들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백인 소년들은 언덕 아래에, 흑인 소년들은 언덕 위로”(the white boys went down the hill and the black boys went up the hill, 50) 보내지면서 인종은 철저하게 구분되었고, 갓 입소한 소년들은 “유충”(Grubs, 49)이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불리게 된다. 니클의 교사들은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men who liked to make threats and relished the effect of their threats on people, 50)이며, 의미 없고 지루한 구달 선생(Mr. Goodall)의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19세기 노예들처럼 “낫과 갈퀴를 들고 캠퍼스의 유색인종 구역을 돌아다녔다”(prowled over the colored half of campus with scythes

and rakes, 61).

이러한 환경에서 엘우드의 가치관은 오히려 그를 폭력의 구렁텅이로 더더욱 몰아넣는다. 상급생인 로니(Lonnie)와 블랙 마이크(Black Mike)가 하급생인 코리(Corey)를 겁탈하려는 장면을 목격한 엘우드는 이들을 말리는 와중에 턱을 얻어맞는다. 사건을 발견한 백인 교사 필(Phil)은 이들의 이름을 스펜서에게 넘기고, 곧 가해자 로니는 60여대, 피해자 코리는 70여대, 그리고 이를 말리고 정의를 실현하려던 엘우드는 기절할 때까지 몇 대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맞게 된다. 이는 친구 데즈먼드(Desmond)가 엘우드에게 말해준 것처럼, 니클에는 정의가 없으며, 모든 일들이 “동전 던지기”(coin toss, 63)처럼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무질서한 폭력 속에서 킹 목사의 정신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계속 검증한다.

이처럼 니클에서의 무자비한 폭력은 엘우드의 신념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 이 엘우드란 인물을 검토하는 작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의 친구인 잭 터너라고 볼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인터뷰에서 엘우드와 터너의 인물 구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니클의 소년들』의 두 영웅 [엘우드와 터너를] 만들 때, 저는 제 내적 딜레마를 빌려왔습니다. 트럼프 정권 아래서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제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반대의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엘우드에게 세상의 악의 세력과 맞서는 모델을 제시해줍니다. 만약 네가 떨어져 일어난다면,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사회 질서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말이죠. 반면에 터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니클 아카데미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힘들의 대역이 됩니다. 엘우드와 터너가 소년원에서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고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는데, 저에게는 그게 소설의 핵심입니다. 두 가치관 사이의 전쟁이죠.(「작가 인터뷰」)

화이트헤드가 지적한 이 토론은 제7장의 병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체벌을 당해 실려 온 엘우드와 달리 터너는 노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일부러 가루비누를 먹어 입원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거나 라디오를 듣는 등 일상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병동에 스펜서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고 엘우드는 “이불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며”(sweat through to his sheets, 80) 자신에게 새겨진 폭력을 상기하게 된다. 엘우드는 자신이 당한 폭력이 니클 감화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터너에게 물어보고, 터너는 “가끔 화이트하우스에 끌려간 애를 두 번 다시 못 볼 수도 있다”(Sometimes they take you to the White House and we never see your ass again, 80)며 오히려 살아남은 그가 운이 좋은 것이라 대답한다(63). 엘우드가 학생들의 괴롭힘에 관여된 일에 대해서도 터너는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그가 개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훈계한다. 또한 터너는 니클 감화원에서 작동하는 부당하고 폭력적인 메커니즘이 니클 밖의 세계에서 가식에 가려져 안 보일 뿐, 결국 니클의 안과 밖에서 모두 폭력과 불법의 메커니즘이 똑같이 지배하므로, 엘우드가 유난을 떨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엘우드는 니클의 폭력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We can stand up for ourselves, 64)며 이 불의의 현실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병동에서의 이 토론은 개혁보다는 니클에서 생존자로 출소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터너의 말로 끝나며, 각기 이상과 현실에 기초한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엘우드는 자신의 이상주의를 꺾지는 않더라도, 일단 터너의 말대로 니클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묵”(silence, 83)하기로 마음먹는다. 실제로 엘우드는 하급생을 괴롭힌 상급생을

고발하지도 않았으며, 면회를 온 할머니에게 체벌당한 사실도 숨겼다. 니클의 폭력이 엘우드를 굴복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에 의한 변화는 작품 속에서 빈번하게 제시되는데, 니클을 겪은 이들은 보통 엘우드와 비슷하게 도덕성이나 가치관이 왜곡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온순하게 순응하던 제이미(Jaimie)는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얼(Earl)에게 말구토제를 먹이는 음모를 실행하며 거의 죽일 뻔하기도 한다. 또한 제16장에서 엘우드가 갇힌 니클 내의 독방 감옥의 역사가 언급되는데, 이 감금 생활을 겪은 학생들은, 살아남더라도 후에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또 다른 폭력에 휘말려 죽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엘우드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절망적인 폭력의 상황과 그에 따른 엘우드 스스로의 변화는 흑인이 역사가 왜 기록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인종 폭력은 피해자를 건잡을 수 없이 망가뜨려버리는 것이다.

터너와의 토론 이후로도 엘우드는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하는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공부를 잘 했던 자신에게 걸맞은 교육을 받고자 구달 선생에게 자신에 수준에 맞는 수업을 요청해 보았지만 묵살되었으며, 터너의 말대로 니클의 일들을 알게 될수록 니클 안과 밖의 세계가 깊게 연루되어있다는

증거만이 확실해질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엘우드 는 기록이라는 단 하나의 저항 방식을 이어간다. 바깥 세상에서는 힐 선생의 영향을 받아 시위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 있었지만, 교도소 안에서 엘우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안쪽”에서 관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엘우드는 자유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나중에 머리로 다시 조립해볼 요량으로 움켜쥐었다. 주변 모든 것의 생김새와 냄새, 그리고 그밖의 모든 것들. . . . 밖에 나갔다가 니클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자세한 사항들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날짜.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기관의 이름. 어떤 이름은 채워 넣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항상 끈기 있고 철저한 성격인 엘우드는 [늘 이를 완수했다].

Elwood grabbed everything he saw in the free world to reassemble it in his mind later. What things looked like and what things smelled like and other things as well. . . . Each time they returned to Nickel, he wrote down the particulars in a composition book. The date. The name of the individual and the establishment. Some names took a while to fill in, but Elwood had always been the patient type, and thorough(96).

사실 이와 같은 엘우드 기록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 게다가 니클이라는 공간에서는 모두가 침묵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으며, 니클 밖에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엘우드가 “『시카고 수호자』 신문에 두 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wrote *The Chicago Defender* twice, but hadn't heard back, 174)는 서술에서 보듯, 니클 감화원에서 벌어지는 갖은 불법, 불의, 그리고 끔찍한 폭력을 공론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록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엘우드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과업이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뿐이다”(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only light can do that, 132)라는 킹 목사의 말에 따르면, 엘우드에게 있어 올바른 저항은 니클의 동료 수감생들이 선생에게 구토제를 먹인 것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어둠의 근원이라 볼 수 있는 니클 감화원을 뒤로 한 채 혼자 비겁하게 도망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또한 작품 후반부에서 엘우드는 “계속 고개를 조아려 받은 보상”(kept his head down and was rewarded)으로 교도소 내 평가 등급이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158), 그가 철저히 작성해온 고발의 기록물을 숨긴다면, 그는 “킹 목사가 옥중 편지에서 언급했던—수년의 억압 후 너무나도 현실에 안주하고 나른해져서, 억압에 적응해 이를 유일한 침대로 삼아 잠들기를 배워버린—검둥이들 중 하나”(one of those Negroes Dr. King spoke of in his letter from jail, so complacent and sleepy after years of oppression that they had adjusted to it and learned to sleep in it as their only bed, 156)로 전략해 의미없는 삶을 이어나가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 후에 결국 엘우드는 “니클을 없애기로”(Get rid of Nickel, 158) 결정하고, 니클에 대항한 그의 고발 기록을 공론화할 방향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때 마침 학교에 플로리다(Florida)주 정부의 감사가 학교에 오게 되고, 엘우드는 터너를 통해 조사관에게 자신의 쪽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가 신문에 투고한 고발 편지가 묵살되었던 것처럼, 엘우드의 고발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철저히 무시되고, 그가 고발했다는 사실만 학교로 전달되어 스펜서는 엘우드를 폭행한 뒤 독방에 가둬버린다.

니클 내부의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펜서는 “엘우드의 쪽지가 [자신들에게] 어떤 손해를 일으킬 건지 알지 못했기에”(didn't know what damage the boy's letter had

caused, 192), 그는 엘우드를 독방에 가둬둔 채 상황을 지켜본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주 의회가 점점 조용해지자”(Things were quieting down at the state house, 194) 스펜서는 비로소 안심하며 엘우드를 “뒤쪽”으로 끌고가 죽이고자 한다. 이 음모를 듣게 된 터너는 현실주의적인 자신의 원칙과 니클에서 그가 영리하게 누렸던 모든 편의들을 포기한 채 목숨을 걸고 엘우드와 함께 도망친다. 그러나 엘우드는 터너와 함께 도주하는 도중 추격하던 하퍼 선생의 엽총에 맞아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의 열렬한 이상주의적 원칙들도 그와 함께 잠들게 된다.

위와 같이 엘우드라는 한 흑인 소년의 짧은 삶을 통해 드러난 특성들을 검토함으로써, “마틴 루터 킹의 민권운동 정신을 지켜내려는 일반 흑인이 1960년대 폭력적인 인종차별의 미국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화이트헤드가 『니클의 소년들』에서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았다. 이에 대한 저자의 역사 재해석의 의미를 정리해보자면, 작가 화이트헤드는 작품 서술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첫째, 감춰져온 인종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일반 흑인들의 삶을 통해 재조명하고, 둘째, 이에 저항하는 민권운동의 이상을 손쉽게 짓밟아버리는 인종차별과 폭력의 실상을 엘우드의 죽음으로써 생생히 고발해내는 성과를 거둔다.

이 두 논의에 더하여 다음 장에서는, 이 작품에서 최종적으로 탐구하게 되는 역사 재해석의 의의로서 엘우드와 터너로 대표되는 두 가지 딜레마, 즉 민권운동 세대의 이상주의와 현대 흑인 현실주의의 통합 가능성의 주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 현대 흑인의 현실주의와 민권운동 세대의

이상주의적 정신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본론의 2장에서 보듯, 엘우드라는 인물은 민권운동 시기의 정신, 그 중에서도 킹 목사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물에 유형에 대해 화이트헤드는 민권운동 세대의 신념과 움직임이 영웅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엘우드의 죽음에서 보듯이와 같은 영웅적 면모가 미국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폭력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 영웅적 면모에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결국 이 작품은 “민권운동 의식을 바탕으로 현대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기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해 화이트헤드는 터너의 존재로서 답을 한다. 작품의 에필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니클에서 살아나오는 데 성공한 터너는 엘우드의 이름을 쓰고 엘우드의 이상주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작품 전반에 걸쳐 맹목적으로 현실주의를 좇던 터너가 현대에 와서 이와 같은 변화를 보였다는 것은, 저자가 현대 미국 사회에서 민권운동의

정신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의 3장에서는 터너의 변화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화이트헤드의 최종 주장을 분석해보겠다.

터너가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엘우드의 시점으로 대부분이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이유를 작품 후반부에서 찾을 수 있다. 엘우드와 터너는 사회봉사를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를 보게되는데, 그들이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과거의 사건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처럼 제시된다. 엘우드는 니클의 폭력과 체벌의 공간인 “아이스크림 공장에 끌려가보았기”(the visit to the Ice Cream Factory, 124) 때문에, 그리고 터너는 “이모의 남자친구”(his aunt’s boyfriend, 124)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혐오한다. 터너의 이모 메이비스(Mavis)는 부모님이 없는 터너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는데, 그녀의 애인 이슈마엘(Ishmael)은 메이비스에게 종종 자신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했으며, 그럴 때면 그녀는 “2주 내내 선글라스를 착용”(wore sunglasses two weeks straight, 126)해야 했다. 이슈마엘이 터너에게 사준 아이스크림은 폭력을 비난하지 못하게, 잊도록 하기 위한 입막음용이었고, 그리하여 어린 터너는 “한 숟가락씩 가득 [비참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리면서”(ate every miserable spoonful,

126), 어린 나이에 폭력의 현실과 그 쓴 맛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엘우드를 만나기 전의 터너가 정의감이나 도덕심이 완전히 거세당한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이는 엘우드와의 대화에서 터너가 본인이 니클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시된다. 터너는 백인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볼링장에서 핀세터(pinsetter)로 일했고, 터너 자신도 “손님들이 나를 좋아해서, 팁을 주기도 했다”(the customers liked me, they gave me tips, 94)고 말할 만큼 그는 인종차별적인 직장 환경에 잘 적응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날 볼링장에서 햄버거를 굽는 루(Lou) 영감이 터너가 백인 앞에서 가식을 떼다고 나무라며 “자존감을 배워본 적인 없는거냐”(Ain't nobody ever teach you self-respect, 95)며 시비를 걸자, 터너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리”(all hot, 95) 아무 말도 못 한다. 루 영감의 지적이 타당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터너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은 그가 아직 흑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올바른 삶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막연한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인적인 분노의 형태, 즉 백인의 자동차에 “콘크리트 블록을 던지는”(threw a cinder block, 96) 행위로 표출해버리고 만다. 이 일로 인해 터너는 니클 감화원에 갇히게 되고, 미국 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개인적인 반항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인종차별 현실의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볼 수 있는 니클에서 터너는 엘우드라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 물론 터너가 엘우드에게 접근한 이유는 엘우드가 형편없는 식사로 나온 오토밀을 “엄마가 만든 것처럼”(like your mama made it, 56) 맛있게 먹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이지만, 병동에서의 대화를 계기로 터너는 엘우드와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터너는 하퍼에게 부탁해 엘우드가 주기적으로 감화원 밖의 자유세계(the free world, 88)에 나갈 수 있게끔 해주며, 교사 스펜서가 흑인 학생 그리프(Griff)에게 권투 시합을 일부러 백인 학생에게 저주라고 헐박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터너는 자신이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the only person Turner could tell, 103)이 엘우드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들은 터너가 이상주의자 엘우드의 견해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마음 속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니클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 토론할 때, 엘우드는 무죄를 입증하고 뚝뚝하게 “졸업”(graduate, 82)하는 것이라고 명명하는 반면, 터너는 “여기서 [살아서] 걸어나가는 것”(walk out of here, 82)만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함으로써, 둘 사이의 견해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작품 중반까지 터너는

엘우드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즉 엘우드의 이상주의와 터너의 생존 논리는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킨다.

그러다가 작품의 후반부인 제14장에서 터너는 드디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즉 하퍼의 심부름 때문에 엘우드가 니클을 폭로하는 문서를 직접 전달할 수 없게 되자, 매우 놀랍게도, 지금까지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현실주의자 터너가 이러한 위험한 모험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하며 망설이기 시작한 것이다. 즉 터너는 늘 그래왔듯 엘우드의 위험한 거사에 동참하지 않은 채 니클에서의 삶을 계속 안전하게 이어나갈지, 아니면 이 이상주의적인 친구 엘우드가 무모하게 추구하는 정의에 동조해 그 대신 쪽지를 장학사에게 전달할지 결정해야 했다. 이러한 내적 갈등 상황에서 터너는 자신의 생존 원칙을 거슬러 위험한 후자의 방식을 선택한다. 터너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는 작품에 명시되지 않는다. 사실 니클에서 그의 생각을 바꾼 계기들은 엘우드와의 대화뿐이다. 즉 대화를 통한 서로의 존재 확인이 터너로 하여금 자기 내면에 있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작품 후반부의 탈출 과정에서 엘우드는 총에 맞아 숨지고, 터너만이 니클 밖으로 도망치게 된다. 니클 안에서 이루어진 엘우드와의 대화가 터너 내면의 정의관을 되살리는 데

그쳤다면, 이제 바깥 세상으로의 탈출은 터너에게 해당 정의관을 직접 실천하기를 요구한다. 물론, 더 이상 엘우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터너는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 없이 자신이 추구해왔던 현실주의로 돌아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터너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자기 이름을 엘우드 커티스로 바꾸는 제약을 건다. 이 제약은 미국의 시민이었던 엘우드를 기억하고자 하는 터너의 의지이기도 하며, 작품 내내 제시된 킹 목사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터너의 다짐이기도 하다. 비록 터너가 인종 문제와 관련된 “경찰과 사법 체제”(cop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5)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발작에 가까운 분노를 보였지만, 그는 아내이자 같은 흑인인 밀리(Millie)와의 연대를 통해 엘우드의 가치관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간다. 터너는 이런 방식으로 니클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경야독으로 고졸 학력 인증서를 취득했으며, 자기의 이삿짐 센터 사업을 열어 꾸준히 확장해 나갈 정도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나간다. 결과적으로 작품의 마지막 즈음, 터너는 “이삿짐 업체를 소유하며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고 정신적인 스승 역할도 하는 흑인 남성”(a black man who owned his own moving company, employed local people, mentoring, 188)으로서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제의까지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터너는 “살아남는

걸로는 충분치 않아, 넌 살아야 해”(it’s not enough to survive, you have to live, 204)라고 말한 엘우드의 조언을 평생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온 것이다.

엘우드와 터너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내면의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터너에게 남겨진 과제는 현대 미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터너,” 즉 현실주의자들에게 “엘우드,” 즉 킹 목사의 정신이 되어주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언”과 “인정”을 제시한다. 터너의 첫 번째 증언은 그의 아내 밀리에게 “그의 친구 [엘우드]의 이야기를 포함한 모든 것들”(the rest, including the story of his friend, 204)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증언은 밀리가 터너의 본명을 처음으로 불러주며 그의 존재를 “이해했다”(understood, 206)고 말하는 것으로써 완성된다.

밀리는 터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지금 2014년 뉴욕에 살고 있다”(206)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는 그녀가 터너의 과거를 들으며 이끌어낸 현재에 대한 생각으로서, 인종차별의 폭력이 여전히 자행되는 현재의 미국 사회에서 자신이 흑인으로서 살아나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해준 것이다. 한편, “[터너]의 어머니와 이모를 빼면 지금껏 누구도 그를 잭이라고 부르지 않았다”(no one had ever called him Jack except his mother and his aunt)는 화자의

설명은, 터너의 고백 이후 밀리가 그를 터너로 정식으로 인정함으로써, 생애 처음으로 그가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터너와 밀리 사이에 드러나는 “증언-인정” 구조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욱 크게 확장된다. 즉 밀리에게 니클의 이야기를 끝낸 터너는 지금까지는 자신이 “[니클]의 이름과 사진을 보는 것에 몹시 겁을 내고 있었음”(scared he got seeing the name of the place and the pictures, 208)을 인정하는 한편, 이제는 이러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과거에 묻혔던 폭력을 직접 고발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 수십 년간 떠나있던 텔러해시로 향하게 된다.

프롤로그에서도 제시되었지만, 텔러해시에서는 이미 니클의 진실을 발굴하고 규명하는 취재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과거에 니클에 수감되었던 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온라인 모임들도 있었다. 이제 이 폭력의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모두가 함께 겪은 어두운 시절을 확인하는 작업”(reassembling those fragments into confirmation of a shared darkness, 6)은 터너와 밀리가 주고받던 증언과 인정이 다수의 증언의 형태로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이 화이트헤드는 집단적 소통과 그에 대한 인정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묻히고 감춰졌던, 즉 흑인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확장된 증언-인정 과정을 통해
민권운동 세대의 이상적 정의관이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실현
가능하리라고 주장한다.

III. 결론

화이트헤드의 『니클의 소년들』은 작품 속의 다양한 서술 장치를 통해 짐 크로 시대의 역사를 재해석함으로써, 그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기술 메타픽션의 장르적 특성을 보여준다. 작품의 전반에 걸쳐 제시된 은폐성의 활용은 짐 크로 시대의 미국에 안과 밖이란 이중적인 속성을 부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감춰져온 폭력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게 한다. 이를 한층 더 부각하는 요소는 주인공 엘우드의 존재이다. 그는 킹 목사의 도덕적 규율을 완벽하게 이행하고자 하였지만, 미국 사회의 이면, 즉 인종차별과 폭력이란 감춰진 역사의 결정체라 할 니클에서 결국 파괴되어버리고 만다. 엘우드의 실패는 짐 크로 시대의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한편,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과 양심에 호소하는”(appeal to your heart and your conscience, 196) 킹 목사의 민권운동 정신 또한 개인적 실천의 수준으로는 인종차별의 폭력에 완벽히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화이트헤드는 이 문제에 대해 터너의 존재로써 답한다. 작가의 이 대답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회적 인정을 통한 트라우마의 극복과, 사회적 연대를 통한 이러한 인정의 확장이다. 니클에서의 인종차별과 폭력의 경험은 터너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였지만,

그에게는 엘우드를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며, 그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아내이자 동료인 밀리도 있었다. 그리하여 터너가 절망할 때마다 엘우드의 가치관은 그에게 살아가야 할 방식을 알려주었으며, 그가 과거의 일로 괴로워할 때 밀리는 터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곁에 있어 준다. 이렇게 엘우드와 밀리의 존재를 통해 미국 사회의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터너는 이러한 상호 인정의 관계를 점점더 확장해나간다. 즉 니클에 대한 집단적인 증언과 관심—각종 매스컴의 관심, 모임을 통한 당사자 간의 상호 인정 등—은 터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에 대한 인정은, 곧 그들이 겪었던 은폐되었던 폭력의 역사를 미국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일반 흑인 시민의 시각을 추가하여 역사를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작품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화이트헤드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미국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꿈꾸었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작품에서 언급된 대로, 터너처럼 폭력의 역사를 견뎌낸 이들은 극소수이며, 니클을 벗어난 이들은 대부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게다가 정신적, 육체적인 재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건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또다른 수준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나 집단이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현대 공론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매스컴이나 인터넷도 인정의 구조를 확산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혐오의 구조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작가 화이트헤드는 『니클의 소년들』의 마지막에서 터너의 증언 활동이 어떤 결실을 볼게 될지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작품을 끝낸다. 이는 작가가 역사의 고발과 증언이라는 이상적인 해결방식을 서술상 제시했으나, 이것이 미국의 인종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리라고는 단정짓지는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클의 소년들』은 현대 미국 사회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이 작품은 흑인의 역사, 그중에서도 역사책에 기록되는 인물들이 아닌, 일반적인 흑인 시민의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짐 크로 시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역사서술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서 미국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니클의 소년들』을 읽는 독자는 작품에 제시된 증언-인정의 첫 단계를 쉽게 밟을 수 있다. 터너의 트라우마 극복에는 시간, 의지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동료를 필요로 했지만, 본 작품의 독자는 이 시간, 의지, 동료를 요구하는 긴 과정을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즉 많은 독자들은 『니클의 소년들』을 통해 심리적인 부담 없이 작가 화이트헤드와의 소통하며 미국 시민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니클의 소년들』은 인종차별과 폭력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과거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하고, 이렇게 수정된 역사 인식을 통해 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짐 크로와 민권운동을 둘러싼 역사를 재인식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인정을 확산하는 방식—을 독자에게 제안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재고와 참여를 촉구한다.

인용 문헌

- 김승욱 역. 콜슨 화이트헤드. 『니클의 소년들』. 은행나무, 2020.
「'니클의 소년들' 콜슨 화이트헤드 작가 인터뷰」. *Youtube*,
uploaded by 은행나무TV, 29 Dec. 2020,
youtu.be/qm8XP2k1TBo.
- 소조, 혼다. 김효진 역. 『미국 흑인의 역사: 진정한 해방을 위한
발자취』. AK, 2021.
- 손세호 등 역.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휴머니스트, 2008.
- 진, 하워드. 김영진 역. 『하워드 진 살아있는 미국역사: 신대륙
발견부터 부시 정권까지, 그 진실한 기록』. 추수밭, 2008.
-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상담학 사전』, 201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4496&cid=62841&categoryId=62841>. Accessed 2 Dec. 2022.
- “Charleston Church Shooting.” *History*, 8 June 2020,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charleston-ame-church-shooting>. Accessed 2 Dec. 2022.
- Charles, Ron. “In Colson Whitehead’s *The Nickel Boys*, an Idealistic Black Teen Learns a Harsh Reality.” *The Washington Post*, 9 July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entertainment/books/in-colson-whiteheads-the-nickel-boys-an-idealistic-black-teen-learns-a-harsh-reality/2019/07/09/bab00918-a19b-11e9-b732-41a79c2551bf_story.html. Accessed 2 Dec. 2022.
- Dischinger, Matthew. “States of Possibility in Colson Whitehead’s *The Underground Railroad*.” *The Global South*, vol. 11, no. 1, 2017, pp. 82–99.
- Dubey, Madhu. “Museumizing Slavery: Living History in Colson

- Whitehead's *The Underground Railroad*."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 32, no. 1, 2021, pp. 111–139.
- Gaylord, Joan. "The Nickel Boys reckons with a legacy of racism and abuse."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16 July 2019, <https://www.csmonitor.com/Books/Book-Reviews/2019/0716/The-Nickel-Boys-reckons-with-a-legacy-of-racism-and-abuse>. Accessed 2 Dec. 2022.
- Gerny, Rebecca. "Colson Whitehead Holds an Unforgiving Mirror to the American Experiment in *The Nickel Boys*." *The Daily Californian*, 6 Aug. 2019, <https://www.dailycal.org/2019/08/06/colson-whitehead-holds-an-unforgiving-mirror-to-the-american-experiment-in-the-nickel-boys>. Accessed 2 Dec. 2022.
- Hutcheon, Linda. *A Poetics of Postmodernism: History, Theory, Fiction*. Routledge, 1988.
- Manshel, Alexander. "Colson Whitehead'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elus*, vol. 45, no. 4, 2020, pp. 22–45.
- Maus, Derek C. *Understanding Colson Whitehead*. USCP, 2021
- Basu, Moni. "Montford Marines: Few, proud and black." *CNN*, 30 July 2011, www.edition.cnn.com/2011/US/07/30/montford.marines/index.html. Accessed 2 Dec. 2022.
- Salván, Paula Martín. "'A Jail within a Jail': Concealment and Unveiling as Narrative Structure in Colson Whitehead's *The Nickel Boys*." *Critique*, vol. 63, no. 2, 2022, pp. 204–219.
- Urofsky, Melvin I. "Jim Crow Law." **Encyclopedia Britannica**, 9 Sep. 2022, <https://www.britannica.com/event/Jim-Crow-law>. Accessed 2 Dec. 2022.
- Wagner, Erica. "The Nickel Boys by Colson Whitehead—Racism in America." *Financial Times*, 26 July 2019, <https://www.ft.com/content/575810b0-aa13-11e9-90e9-fc4b9d9528b4>.

Accessed 2 Dec. 2022.

Whitehead, Colson. *The Nickel Boys*. Anchor Books, 2020.

---. *The Underground Railroad*. Anchor Books, 2016.

Will, George. “*The Nickel Boys* Is a Searing Reminder of the Danger of Unchecked Power.” *Chicago Tribune*, 23 Aug. 2019, <https://www.chicagotribune.com/opinion/commentary/ct-opinion-nickel-boys-colson-whitehead-george-will-20190822-qzfkfi4kpnactbegmsxbenxqy-story.html>. Accessed 2 Dec. 2022.

Abstract

Excavation of Black History through Literary Imagination: Whitehead's reinterpretation of history in *The Nickel Boys*

BAN HYUNG JU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several articles regard Colson Whitehead's *The Nickel Boys* as a novel of historical realism (Salván 2), this essay analyzes the novel through the framework of "Historiographic Metafiction," which is coined by Linda Hutcheon at *A Poetics of Postmodernism*. The reason for classifying *The Nickel Boys* as a historiographic metafiction is that this novel rearranges and reconstructs historical events to express the author's consciousness of existing history—a hidden story of the Jim Crow era. To prove this premise, this essay will explore and examine the three critical questions that Whitehead addresses throughout the novel: If revealed history is this terrible, what would the hidden history be like?; Could King's spirit have survived the history of violence?; How can modern black realism and the idealism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generation be integrated?

The first question allows readers to see American society from the inside and outside and offers reasonable grounds for a re-view of American history. The second question is a remembrance for the black people who died silently during the Jim Crow era, and a re-examination of the violence that took their lives. And, it is also emphasized by Whitehead that the existence of Elwood, who eventually dies without being able to tell the world Nickel's

secret, has limitations in the spirit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t the level of individual practice. The main subject of analysis—the third question—is how the limitations of the spirit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dentified can be supplemented in modern American society. Whitehead argues that in order to properly inherit the spirit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modern American society, re-recognition of history at the community level and acceptance of members of society are necessary. Through the above three questions, Whitehead diagnoses the racial problems of the Jim Crow era and suggests how to integrate the consciousnes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nto modern society so that the problem does not repeat.

Keywords : Colson Whitehead, The Nickel Boys, Modern American Literature, Historiographic Metafiction, Jim Crow Era, Race Issues

Student Number : 2020-29698